

한국어 비교구문의 유형별 추론에 관한 실험화용적 연구*

이 성 범

(서강대학교)

Sungbom Lee (2014), An Experimental Pragmatic Study of Inferences in Different Types of Korean Comparative Constructions.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21(1), 131-15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experimental pragmatic account of three different Korean comparative constructions: 1) uncommitted differential comparatives, 2) committed differential comparatives and 3) asymmetric equivalent comparatives. All the three types have a gradable adjective like 'chwupta (cold)' or 'ttwungttwunghata (fat)' as their main predicate and the first two types of comparatives employ what is called a comparative postposition '-pota (than)' in common. However, type 2) contains a seemingly extra emphatic adverb '-te (more)' which type 1) lacks. The present paper argues that this difference is not just a matter of emphasis but a crucial source of varying pragmatic inferences. Finally, the third type of comparative constructions that use the particle '-mankhum (as much as)' is not only about similarity between the individuals compared but about further asymmetry between them.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is asymmetry by any formal semantic theory of comparatives. Since each type of Korean comparatives in question can have non-truth-conditional meanings like implicature, presupposition and asymmetry, this requires a pragmatic account. The present study conducts a series of experiments on native speakers' perception of different inferences that each type of comparative constructions may induce. The experimental findings are summarized and discussed to shed light on the pragmatic nature of these Korean comparative constructions. (Sogang University)

Key Words: comparatives, gradable predicates, perception, implicature, presupposition, asymmetry, experimental pragmatics

* 본 연구의 초안은 2013년 한국어의미학회에서 구두 발표된 것으로 당시 학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논평에 감사한다. 이 연구는 2012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과제번호 201210078.01).

1. 서론

이 연구는 ‘출다’, ‘길다’, ‘빠르다’, ‘뚱뚱하다’ 등과 같은 정도적 술어(gradable predicate)가 사용된 한국어 비교구문에서 나타나는 추론 양상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런 종류의 술어가 들어간 한국어 비교구문을 세 가지 다른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서의 상이한 추론 내용에 대해 모국어 사용자의 지각(perception) 패턴을 측정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런 실험에서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한국어 비교구문에서의 화용적 추론을 유형별로 검토하고, 비교구문에 대한 기존의 기술적, 형식의미론적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2. 비교구문의 세 유형

이미 국내외 학자들이 여러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어에서 비교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¹⁾ 다만 이 글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한국어 비교구문은 다음 <표 1>에 제시된 세 유형으로 국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들 세 유형은 한국어 비교구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면서도 각 유형이 갖고 있는 가능한 화용적 추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의 각 유형에서 ‘A’와 ‘B’는 비교대상이 되는 개체들이 자리하는 곳이고, ‘P하다’는 ‘출다’나 ‘뚱뚱하다’와 같은 비교를 나타내는 정도적 술어가 자리하는 곳이다.

<표 1> 비교구문의 3 유형

유형	비교 방식	기본 문형
제1 유형	단순 차등 비교	A는 B보다 P하다
제2 유형	전제 차등 비교	A는 B보다 더 P하다
제3 유형	비대칭 동등 비교	A는 B만큼 P하다

1) 한국어 비교구문의 유형에 대한 최근의 대표적 연구로는 Jhang(2001), Park(2009), Kim and Sells(2009)와 오경숙(2010)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연구는 주로 통사적, 형태적 기준에 의한 유형 분류인 반면 본 연구는 비교구문의 가능한 화용적 추론의 성격에 따른 유형 분류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우선 제1 유형과 제2 유형은 공통적으로 ‘-보다’라는 비교 후치사가 쓰여서 비교가 되고 있는 두 개체 A, B의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구문이다.²⁾ 이 둘은 모두 ‘P하다’로 표현되는 속성, 즉 비교내용에 대한 A와 B의 정도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등 비교이다. 제1 유형과 제2 유형은 둘 다 차등 비교이지만 제2 유형은 제1 유형에 비해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강조어 ‘더’가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실험 자료를 통해 확인하겠지만 이 둘은 단순히 강조의 유무 차이가 아니라 제2 유형은 A와 B의 차이뿐 아니라 더 나아가 A와 B 모두 ‘P하다’로 표현되는 비교내용의 범위 안에 들어 있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그런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제1 유형과 구별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우선 본 논문에서 ‘단순 차등 비교’라고 부르는 제1 유형과 ‘전제 차등 비교’라고 부르는 제2 유형을 의미상 별도의 유형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하길중(1999)에서는 위 <표 1>에서의 제1 유형과 제2 유형을 따로 구별하지 않은 채 모두 ‘정도차등 비교구문’이라 부르고, 다만 서술어의 긍정적/부정적 의미에 따라 ‘우세비교’(영미는 철이보다 걸음이 빠르다)와 ‘열세비교’(영미는 철이보다 걸음이 느리다)로 분류하였다, 김영희(1988) 역시 제1 유형과 제2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차등비교 구문’이라 부르되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 ‘우월비교’(A는 B보다 크다)와 ‘열등비교’(A는 B보다 작다)로 나눈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에서는 비교를 나타내는 술어 앞의 ‘더’의 유무에 따라 비교구문을 세분하지는 않고 다만 ‘더’를 ‘정도부사’(김정대 1994) 또는 ‘정도말’(오경숙 2010)이라 하여 비교의 정도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더’가 단순히 정도를 강하게 표현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전제(presupposition)라는 추론과 연결된다고 보며, 반면에 ‘더’가 쓰이지 않은 제1 유형은 제2 유형에서 볼 수 있는 전제는 지각되지 않고, 대신 부정적 함축이 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

또한 제3 유형의 비교구문은 하길중(1999)에서 ‘유사동등 비교구문’이라 부르고 정인수(1999)와 김정아(1993)에서는 ‘동등비교’라고 한 바 있다. 이 유형의 비교구문은 비교어구인 A와 기준어구인 B 사이의 비교내용 ‘P하다’에서의 차이보다는 A가 B와 비교내용에서 거의 대등하거나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2)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 유형의 비교구문과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A=비교어구, B=기준어구, -보다/-만큼=비교소(비교 후치사), 더=정도말(정도 부사), P하다=비교내용(형용술어). 예를 들어 ‘영미는 선희보다 똥똥하다’에서 A에 해당하는 ‘영미’는 비교어구이고, B에 해당하는 ‘선희’는 기준어구이며, ‘-보다’는 비교소 또는 비교 후치사이고, P하다에 해당하는 ‘똥똥하다’는 비교내용이라 부른다.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제1 유형 및 제2 유형과 다른 추론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추론에 대해 역시 실험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가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유형은 비교어구 A가 기준어구 B에 비해 비교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준어구 B는 비교내용 P의 범위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런 함축은 화자가 제1 유형과 비교할 때 보다 명시적으로 B가 P의 범위 안에 있음을 전제하는 제2 유형을 선택하지 않고 이보다 약한 제1 유형을 선택한 결과로 발생한다.
2. 제2 유형은 기본적으로 제1 유형과 마찬가지로 비교어구 A가 기준어구 B에 비해 비교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 유형과 달리 비교어구 A뿐 아니라 기준어구 B도 비교내용 P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3. 제3 유형은 제1, 제2 유형에 비해 비교어구 A와 기준어구 B의 차이점 보다는 유사성 또는 대등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만 이런 유사성이나 대등성은 둘 사이의 완전 대칭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3 유형에서 비교어구인 A는 기준어구인 B에 비해 비교내용의 정도에 매우 근접하기는 하지만 B의 측정치가 A의 측정치보다 높거나 P의 일반적인 원형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가정 1과 가정 2의 결과, 한국어 비교구문 제1 유형과 제2 유형은 단순히 강조의 차이가 아니라 상이한 성격의 추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비교구문과는 다른 영어 자료에 기반한 Kennedy(2001)의 비교구문에 대한 형식의미론적 접근은 한국어 비교구문에서의 이러한 차이를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 아울러 한국어 비교구문의 제3 유형은 비교대상 사이의 유사성 또는 대등성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교어구가 비교내용에 있어 매우 가깝되 그 속성에서 기준어구에 못 미치는 미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역시 Kennedy(2001) 등이 제안하는 영어의 원급 동등비교의 논리 형식을 적용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각 유형에서 볼 수 있는 추론적 차이를 검토하기에 앞서 우선 다음 절에서는 정도적 형용사가 사용된 문장의 의미 해석에 대한 형식의미론적 접근을 알아보기로 한다.

3. 의미론적 접근

진리조건적 형식의미론에서 다음 (1a)와 같은 문장의 진리치는 1항 술어 ‘alive’의 속성을 가진, 잘 정의된 집합에 주어인 A가 속하면 참이고 그렇지 못하면 거짓이 된다. 반면에 (1b)와 같은 문장의 진리치는 (1a)에서 쓰인 술어 ‘alive’와는 다른 속성을 지닌 ‘fat’이란 술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1a)처럼 간단히 처리할 수 없다.

- (1) a. A is alive.
b. A is fat.

(1b)의 진리치는 Kennedy(2001)가 “본유적으로 모호하다(inherently vague)”고 말한 ‘fat’이라는 술어의 의미 범위 안에서 다른 문장 성분과의 결합 방식에 의해 합성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술어의 외적 요인(external factor)에 의해 가변적이다. 즉 예문 (1b)는 그 문장을 발화하는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뚱뚱함(fatness)’의 기준에 따라 같은 문장이라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될 수 있다. 따라서 술어논리에서 진리치를 계산하기 위한 이 문장의 의미 표상은 단순히 $\text{fat}(A)$ 처럼 나타낼 수 없고 외적 요인을 형식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해진다. 이를 위해 Kennedy(2001)는 Seuren(1978)이나 Cresswell(1976), Klein(1991) 등의 분석과 제안을 받아들여 일단 정도적 형용사를 의미적으로 단순한 1항 술어가 아니라, 대신 개별체(individual)와 정도(degree)의 추상적 표상으로서 측정 논항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2항 술어로 취급한다. 즉 (1b)의 논리적 표상은 단순히 $\text{fat}(A)$ 가 아니라 다음 (2)에서처럼 형용 술어 fat 의 ‘측정 논항(measure argument)’이 별도의 논항으로서 의미 표상 안에 설정된다.

- (2) $\text{fat}(A, d_{s(\text{fat})})$

여기서 $d_{s(\text{fat})}$ 는 ‘뚱뚱함’의 맥락적으로 결정되는 기준을 외연적으로 의미하는 fat의 정도 논항(degree argument)이다. 이 분석에서 위 예문 (1b)는 A가 $d_{s(\text{fat})}$ 만큼만 뚱뚱하면 참이 된다. 즉 $d_{s(\text{fat})} \leq d_A$ 일 경우 또 그럴 때만 참이 된다 (d_A 는 A의 뚱뚱함의 정도를 말함). 예를 들어 다음 (3)과 같은 문장은 한국의 수영선수 박태환의 키가 183cm임을 감안할 때 $d_{s(\text{tall})}$ 이 175cm인 맥락에서는 참이 되겠지만, 세계 수영선수들의 평균 신장을 나타내는 $d_{s(\text{tall})}$ 이 190cm인 맥락에서는 참이 아닐 수 있다.

(3) 박태환은 키가 크다.

따라서 이 방법은 같은 술어라도 맥락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진리치가 달라질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접근 방식은 정도적 술어가 사용된 비교 구문에서의 의미 관계도 잘 포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4)의 논리적 표상은 (5)처럼 표시될 수 있고, (6) 역시 (5)처럼 표시될 수 있어서 (4)와 (6)의 의미적 동치관계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³⁾

(4) *The Brothers Karamazov* is longer than *Crime and Punishment*.

(5) $\exists d[[d > d'.\text{long}(CP, d')][\text{long}(BK, d)]]$

(6) *Crime and Punishment* is shorter than *The Brothers Karamazov*.

그런데 이런 의미론적 접근 방식은 적어도 한국어의 비교 구문이 갖는 가능한 추론을 충분히 다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 한국어 비교구문의 유형별 의미 특성을 알아보도록 한다.

4. 차등 비교구문

한국어의 비교구문 중 이 글에서 제1 유형과 제2 유형이라고 부르는 차등 비교구문의 의미상 차이점을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7) 영호는 태수보다 똥똥하다.

(8) 영호는 태수보다 더 똥똥하다.

제1 유형에 속하는 예문 (7)은 술어 자체는 ‘똥똥하다’로서 영어의 원급에 해당하지만, 홍윤표(1976)에서 ‘통사적 후치사’라고 칭한 ‘-보다’가 ‘똥똥하다’의 앞에 쓰임으로써 비교급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즉 ‘-보다’는 김정대(1994)와 오경숙(2010)도 지적했듯이 비교소의 기능을 가지면서 영어의 ‘than’과는 달리 그것과 호응하는 형용 술어가 반드시 비교급의 형태로 실현되지 않아도

3) 비교구문의 논리적 표상에서 존재양화사(\exists)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Heim(1985)을 참고할 것. (5)에서 CP는 *Crime and Punishment*를 가리키며, BK는 *The Brothers Karamazov*를 가리킨다.

된다. 그런데 예문 (8)에서와 같은 제2 유형의 비교구문은 일부 기존 연구에서의 주장처럼 강조를 위해 ‘더’라는 ‘정도 말’, 또는 ‘정도 부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진리 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앞서 본 Kennedy(2001)의 영어 예문을 위한 의미론적 접근을 그대로 적용할 때 예문 (7)과 같은 논리형식을 공유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7)과 (8)은 다음 (9)의 논리 형식으로 표시된다.

(9) $\exists d[[d > d'.fat(\text{태수}, d')] [fat(\text{영호}, d)]]$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차등 비교 중에서 제1 유형은 A와 B가 단순히 어떤 주어진 속성에 대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구문으로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A와 B를 비교의 내용이 되는 속성의 다과를 건주는 구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형의 비교구문은 제2 유형의 비교구문과는 달리 A와 비교가 되고 있는 B는 그 비교내용의 범위 밖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위에 나온 예문 (7) ‘영호는 태수보다 뚱뚱하다’는 ‘영호가 태수에 비해 뚱뚱한 속성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영호는 그 발화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뚱뚱한 정도가 가리키는 범위 안에 있을 수 있지만, 태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에 예문 (8)은 예문 (7)과는 달리 영호와 태수 모두 그 맥락에서 발화참여자가 공유하는 뚱뚱함의 정도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다음 예문 (10)에서 보듯, 단순 차등 비교인 (7)의 발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론을 강화하거나 (11)에서 보듯 취소해도 문장이 어색하지 않은 반면, 다음 예문 (12)와 (13)에서처럼 전제 차등 비교인 (8)의 발화에서 볼 수 있는 전제를 취소할 경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10) 영호는 태수보다 뚱뚱하다. 하지만 태수는 날씬하다.

(11) 영호는 태수보다 뚱뚱하다. 하지만 태수도 날씬하진 않다.

(12) ?영호는 태수보다 더 뚱뚱하다. 하지만 태수는 날씬하다.

(13) ?영호는 태수보다 더 뚱뚱하다. 하지만 영호는 날씬하다.

기본적으로 차등 비교인 (7)과 (8)의 차이가 단순히 강조의 유무에만 머문다고 본다면 위의 (10)-(13)에서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기존의 분석에서처럼 제2 유형은 제1 유형의 의미론적 의미를 공유하고 거기에 강조가 추가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전제라는 추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 따라서 실제 ‘더’는 강조 이상의 기능을 하지만 이를 단순히 강조 표현이라고 보면 문장의 진리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 채 (7)과 (8)을 기본적으로 같은 논리 표상에 할당하는 Kennedy(2001) 식의 의미론적 접근 방법은 한국어의 두 가지 다른 유형을 충분히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실험-1: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말한 유형별 비교구문에서 의미 내용을 모국어 사용자가 실제로 지각하는지 여부를 4회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40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제1 유형에 속하는 예문 20개와 제2 유형에 속하는 예문 20개를, 이들과 형식상으로는 유사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비교와는 전혀 무관한 채우기(filler) 예문 60개를 순서상 무작위로 섞고 각 제시문에서 주어진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문장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답하게 하였다. 20세부터 35세 사이의 남자 16명, 여자 24명으로 구성된 피험자들은 실험실의 모니터에 제시되는 문장을 어절별로 자기-보속 읽기 (self-paced reading) 방식으로 읽도록 요청되었다.⁴⁾ 그리고는 제시문이 모니터에서 사라지고 2.5초 후 제시문에 대한 확인문을 보여주고 그 내용이 반드시 맞다고 생각할 경우는 ‘그렇다’에 해당하는 키보드 자판 z 를, 맞다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는 ‘아니다’에 해당하는 키보드 자판 m 을 누르도록 하였다. 어절별 읽는 데 걸린 시간 및 확인문이 모니터에서 등장한 후 자판을 누르는 시간은 모두 E-prime professional 2.0 프로그램으로 자동 측정하여 저장하였다. 자판 m 과 자판 z 를 누른 것은 Katsos(2003)를 포함한 일반적인 실험화용론에서의 실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실험 결과는 VassarStats에서 통계 처리되었다. 실제 예문에 사용된 제1 유형과 제2 유형 및 단순 채우기 제시문의 예와 각각에 대한 확인문의 예를 세 개씩만 들면 다음 쪽의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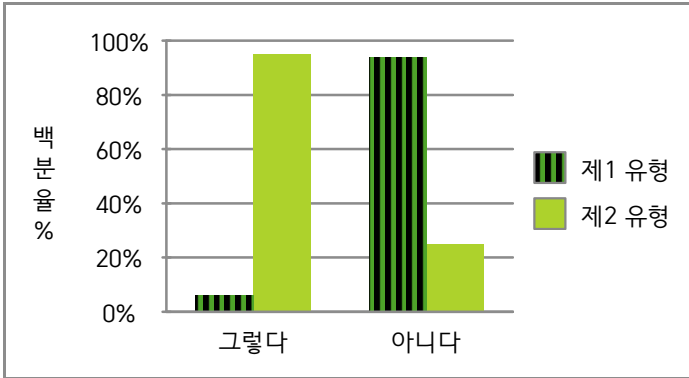
4) 이 연구에서의 실험은 피험자의 성별이나 연령이 주요 변수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성별이나 연령을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았다. 피험자들은 모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였으며 실험에 참여하는 대가로 소정의 참가비를 받았다.

<표 2> 차등비교 실험 제시문과 확인문의 예

유형	제시문	확인문
제1	태호는 민수보다 키가 크다. 미나는 영미보다 뚱뚱하다. 203호는 204호보다 춥다.	그렇다면 민수는 키가 크다. 그렇다면 영미는 뚱뚱하다. 그렇다면 204호는 춥다.
제2	영호는 민수보다 노래를 더 못한다. 영미는 선희보다 수학을 더 잘한다. 203호는 204호보다 더 춥다.	그렇다면 민수는 노래를 못한다. 그렇다면 선희는 수학을 잘한다. 그렇다면 204호는 춥다.
채우기	영호는 태호와 친한 사이이다. 영미는 미나와 같은 대학에 다닌다. 민수는 선희하고 자주 술을 마신다.	그렇다면 영호는 태호와 친하다. 그렇다면 영미는 대학에 다닌다. 그렇다면 민수는 자주 술을 마신다.

‘A는 B보다 P하다’라는 형식의 제1 유형의 예문은 ‘B는 P하다’를 전제하지 않는 반면 ‘A는 B보다 더 P하다’라는 형식의 제2 유형의 예문은 ‘B는 P하다’를 전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험 결과는 이 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다. 즉 제1 유형은 ‘A가 B보다 P하다’라는 제시문을 보여주고 난 후 ‘그렇다면 B는 P하다’라는 확인문을 보여준 다음 이 확인문에 대해 ‘그렇다’와 ‘아니다’로 답하게 한 결과 ‘그렇다’라는 답은 평균 3.5%인 반면, ‘아니다’라는 답은 평균 96.5%로 나왔다. 반면에 제2 유형은 ‘A는 B보다 더 P하다’라는 형식의 제시문에 이어 ‘그렇다면 B는 P하다’라는 확인문을 보여준 결과 ‘그렇다’는 답이 67.9%, ‘아니다’라는 답이 32.1%로 제1 유형과 거의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VassarStats에서의 독립 *t*검증 결과 $t=4.833$, $p<.05$ 로 우연수준(50%)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지각도를 보여주었다. 다음 쪽의 <그림 1>은 유형별로 각 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한 피험자의 숫자와 ‘아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숫자를 백분율로 집계한 결과이다.

<그림 1> 제1 유형과 제2 유형의 전제 지각 여부



제1 유형과 제2 유형의 차이는 단순 차등 비교인 제1 유형에서는 ‘A가 B보다 P하다’에서 ‘B는 P하다’로의 추론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면, 전제 차등 비교인 제2 유형에서는 ‘A는 B보다 더 P하다’로부터 ‘B는 P하다’로의 추론이 상대적으로 잘 일어난다. 즉, 제2 유형은 일단 A와 B가 비교내용인 P의 속성 범위 안에 있고 이 범위 내에서 A가 B보다 좀 더 높은 정도를 보여준다고 이해되는 반면, 제1 유형은 P의 범위 내에 있는 A에 비해 B는 비교내용인 P의 범위에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제2 유형에서 전제의 피험자 지각도 67.9%는 비교급과는 다른 종류의 구문에서 볼 수 있는 전제에 대한 피험자 지각도를 조사한 이성범(준비중)의 실험 결과와 근접한 수치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 (14)-(16)과 같은 예문을 주고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위의 실험-1과 유사한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 (14) 미나는 외국인과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그렇다면 미나는 외국인과 결혼했다.
- (15) 영호는 담배 피우기를 서른 살부터 그만두었다.
그렇다면 영호는 서른 살 전에는 담배를 피웠다.
- (16) 민수는 다시 미국으로 갔다.
그렇다면 민수는 전에 미국으로 간 적이 있다.

이 예문들은 비교구문은 아니지만 각 문장에 쓰인 전제 유발 표현인 ‘후회하다’, ‘그만두다’, ‘다시’ 등에 의해 전제가 발생하는 문장들로서 시험-1과 같

은 조건에서 피험자들에게 각각의 예문의 전제 지각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예문 (14)의 경우는 평균 72%, (15)의 경우는 평균 63%, (16)의 경우에는 76%다 ‘그렇다’라고 답함으로써 전제 추론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비교할 때 제2 유형의 비교구문에서 전제에 대한 평균 지각도 67.9%는 다른 종류의 전제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서 이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다 ($t=-2.2$, $p<0.05$). 그리스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Katsos(2003)의 함의(entailment), 함축(implicature), 전제(presupposition)의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추론에 대한 지각 실험의 결과에서 전제는, 거의 100%에 가까운 함의 지각에 비해 다소 지각도가 떨어지지만 함축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지각도를 보여준 바 있다. 지각도뿐 아니라 이해 속도에서도 이 세 유형의 추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Katsos(2003)는 어떤 주어진 발화의 함의와 양의 함축과 전제에 대한 이해가 온라인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 반응 속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추론 유형 중에서 함의는 가장 빠르게 이해되는 반면, 양의 함축은 온라인으로 일어나기는 하되 셋 중에서 가장 늦게 이해되었으며, 전제는 함축보다는 함의에 가까운 정도의 빠르기로 이해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실험적 결과에 대해 Katsos(2003: 113)는 전제란 추론은 완전히 논리적이고 취소불가능한 추론인 함의보다는 약하지만 맥락의존적이며 취소 가능한 추론인 함축보다는 강한 추론으로서 이 세 유형의 추론 중 중간적인 강도(strength)를 지니되, 함축보다는 함의에 가까운 추론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 실험의 결과도 제2 유형의 비교구문에서 전제에 대한 지각은, Katsos의 함의 지각보다는 약하지만 다른 종류의 전제 지각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제1 유형의 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의 평균 반응 속도와 제2 유형의 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응답의 평균 반응 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다음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3> 지각 반응 시간 측정 결과 (단위: msec)

유형	평균 반응 시간	표준 편차
제1 유형	3752	1736
제2 유형	2984	1018

평균적으로 제1 유형의 예문에서 지각 반응 시간이 제2 유형의 예문에서 지각 반응 시간보다 길다는 것은, 제1 유형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함축 취

소과정이 제2 유형의 추론에서 볼 수 있는 전체 지각보다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Katsos(1999)의 실험에서와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⁵⁾

실험-2:

위에서 보듯 한국어 사용자에 대한 위 실험에서 제1 유형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기준어구 B가 비교내용 P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고 추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제1 유형의 이런 추론이 어느 정도 인지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1과 다른, 20세부터 26세까지의 대학 재학생 피험자 40명을 대상으로 제1 유형에 관해서 추가 실험을 하였다. 실험-1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실험-2에서는 제1 유형에 속한 ‘A는 B보다 P하다’라는 형식의 제시문에 이어 비교내용 ‘P하다’의 반의어인 ‘Q하다’를 사용한 ‘B는 Q하다’라는 확인문을 제시문에 후행시킬 경우 이 전체 문장의 연결이 의미상으로 적절하지 아니면 어색한지를 묻는 지각 검사를 실시하였다. 표-4는 이 실험에 사용된 예문 중 일부이다,

<표 4> 실험-2의 제시문과 확인문

유형	제시문	확인문
제1	태호는 민수보다 키가 크다.	그렇다면 민수는 키가 작다.
	미나는 영미보다 뚱뚱하다.	그렇다면 영미는 날씬하다.
	203호는 204호보다 춥다.	그렇다면 204호는 덥다.

조사 결과 피험자들이 제시문과 확인문의 두 문장 연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평균 37.5%인 반면 ‘어색하다’, 즉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는 평균 62.5%에 달했다. 이 중 적절하다고 판단한 비율은 실험-1에서 제1 유형의 전체가 지각되는지를 물었을 때 나온 긍정적 응답의 평균 비율 3.5%에 비해 훨씬 높지만 제2 유형의 전체에 대한 긍정적 응답의 평균 비율 68%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제1 유형의 ‘A는 B보다 P하다’가 “B는 P하지 않다”라는 함축적 추론은 비교적 강도가 낮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쪽의 <표 5>는 제1 유형에 속한 예문에 대해 실험-1과 실험-2의 결과를 예시적으로

5) Katsos(2003)의 실험에서는 양의 함축이 포함된 예문을 읽을 때의 시간이 평균 407msec로서 전체가 포함된 예문을 읽을 때의 평균 시간 3317msec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⁶⁾

<표 5> 제1 유형에 대한 실험-1과 실험-2의 비교

		응답자 수	지각 반응 및 응답자 수
제시문 예: (실험-1, 실험-2 공통) 태호는 민수보다 키가 크다. 미나는 영미보다 뚱뚱하다. 203호는 204호보다 춥다.			
확인문 예: 실험-1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면 민수는 키가 크다.	40	4	36
그렇다면 영미는 뚱뚱하다.	40	1	39
그렇다면 204호는 춥다.	40	2	38
실험-2		적절하다	어색하다
그렇다면 민수는 키가 작다.	40	11	29
그렇다면 영미는 날씬하다.	40	15	25
그렇다면 204호는 덥다.	40	14	26

제1 유형의 함축적 추론이 제2 유형의 전제 추론보다 전체적으로 피험자 지각도에서 낮게 나온 것은 Levinson(2000)의 지적처럼 함축 추론이 보다 맥락의존적인 추론인데도 본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이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는 맥락적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험자 응답의 37.5%가 그런 함축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은 피험자 스스로 그런 맥락의 지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실험자가 그런 맥락을 명시적으로 지정했다면 보다 높은 수치의 적절성 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차등 비교구문에 대한 이런 실험 결과로 볼 때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은 제1 유형과 제2 유형에서의 추론을 대부분 지각하고 있고 그 차이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예문은 ‘뚱뚱하다’ 외에도 이런 추론 현상은 ‘뚱뚱하다’ 이외의 다른 종류의 정도적 형용사에도 두루 적용될 수 있다.

6) 단 실험-1과 실험-2의 비교는 피험자 집단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타당한 비교로 볼 수 없고 단순한 검토 대상으로서의 의미만 갖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5. 대등 비교구문

지금까지 본 제1 유형 제2 유형은 공통적으로 비교어구와 기준어구의 비교 내용에서의 차등 비교인 반면, 제3 유형은 다음 예문 (17)처럼 비교어구와 기준어구가 비교 내용에서 거의 동등한 정도임을 나타내는 대등 비교라고 할 수 있다.

(17) 영호는 태수만큼 똥똥하다.

김정아(1993)는 (17)과 같이 ‘-만큼’이 사용된 비교구문을 “동등비교”라고 불렀는데 이 분석에 앞서 본 Kennedy(2001)의 형식의미론적 논리 표상 방식을 적용하면 예문 (17)은 다음 (18)처럼 나타낼 수 있다.

(18) $\exists d[[d = d'.fat(\text{태수}, d')][fat(\text{영호}, d)]]$

(18)에 따르면 ‘영호는 태수만큼 똥똥하다’는 그 발화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똥똥함의 정도를 고려할 때 영호의 똥똥함의 정도가 태수의 똥똥함의 정도와 같으면 참이다. 그러나 ‘-만큼’이 사용된 비교는 하길중(1999: 147)의 지적대로 단순동등 비교가 아니라 비교되는 두 대상의 모양, 성질 등이 완전히 같지 않고 비슷한 것을 말하는 ‘유사동등 비교’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비교가 되는 둘 사이의 유사성에서도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3 유형의 비교구문은, 물론 기본적으로 비교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을 나타내지만, 그 유사성에서 일정한 패턴의 추론이 발견된다. 위 예문 (17)에서 영호와 태수는 똥똥함의 정도에서 매우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동등하지는 않다. 이 점에서 한국어 제3 유형의 ‘-만큼’ 비교구문은 영어의 대표적인 동등 비교인 ‘A is as P as B’와 같지 않다. 즉 예를 들어 *John is as heavy as Bill*은 *Bill is as heavy as John*으로 바뀌 쓸 수 있고 *John is twice as heavy as Bill*이란 문장은 *Bill*이 몸무게가 60킬로라면 *John*은 120킬로로서 *Bill is half as heavy as John*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 둘은 진리조건이 동일하다. 그러나 한국어의 제3 유형인 예문 (17)은 엄밀히 말해 기준어구로서 개별체인 태수가 또 다른 개별체인 비교어구 영호에 비해 형용 술어가 지칭하는 똥똥함의 정도가 더 높으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잘 알려진 연예인인 허경환과 김병만이

모두 키가 작다고 인정되는 맥락에서 다음 (19)는 비교적 자연스럽지만 같은 맥락이라도 (20)은 덜 자연스럽거나 의미적으로 이상하게 들린다.⁷⁾

(19) 허경환은 김병만만큼 키가 작다.

(20) ?김병만은 허경환만큼 키가 작다.

그 이유는 두 사람 모두 키가 작다고 해도 약간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고 그 키가 작다는 속성을 김병만이란 개별체가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 어구인 허경환을 기준어구 김병만 쪽으로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역방향으로의 비교는 아무리 동등비교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부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이다. 즉 ‘A는 B와 키가 같다’는 ‘B는 A와 키가 같다’로 바뀌 쓸 수 있는 대칭성을 갖고 있지만, ‘A는 B만큼 키가 작다’는 P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B는 A만큼 키가 작다’로 바뀌 쓸 수 있는 대칭성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 모두 ‘-만큼’이 대등 또는 동등 비교로서 유사성에 초점을 둔 비교라고 한 것은 타당한 분석이지만 더 나아가 제3 유형에서 유사성에 대한 추론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비대칭적 대등 비교 구문에서 추론의 비대칭성이 얼마나 지각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행하였다.

실험-3:

본 연구에서는 제3 유형의 의미처리에 있어서 비대칭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만큼’이 사용된 비교구문을 피험자에게 보여주고 그 문장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가상의 도시 A, B, C의 2013년 2월 16일 현재 기온을 아래 (21)과 같이 보여주고 이 상황을 A와 B, B와 C, 그리고 A와 C 두 도시별로 ‘-만큼’이 들어간 제3 유형의 비교구문으로 표현한 것을 하나씩 랜덤한 순서로 제시할 때 각각의 경우 그 비교구문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다음 쪽의 <표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7)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 두 사람이 결코 키가 작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런 맥락 d’은 여기서 채택하고 있는 보다 일반적인 맥락 d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로 이 두 연예인의 키는 네이버 인물 정보에 허경환은 170cm, 김병만은 158.7cm로 수록되어 있는 것을 따른 것임.

(21)

도시	A	B	C
오늘 기온	-12°C	-9°C	7°C

<표 6> ‘-만큼’ 비교구문의 적절성⁸⁾

기준 어구	비교 어구	비교구문 예문	적절하다	아니다
A	B	오늘 A는 B만큼 춥다	13 (3471)	17 (2548)
B	A	오늘 B는 A만큼 춥다	26 (2315)	4 (4109)
B	C	오늘 B는 C만큼 춥다	0	30 (2063)
C	B	오늘 C는 B만큼 춥다	2 (4316)	28 (2118)
A	C	오늘 A는 C만큼 춥다	0	30 (2012)
C	A	오늘 C는 A만큼 춥다	0	30 (2274)

<표 6>에서 보면 비교어구와 기준어구의 위치에 따라 추론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적절성의 반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선 A와 B를 비교할 경우, 보다 추운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덜한 B를 주어로 해서 ‘-만큼’의 대비 비교로 표현한 예문은 86.6%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반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13.3%에 머물러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A가 B보다 비교내용, 즉 ‘춥다’에서 더 정도가 높을 경우에도 ‘A는 B만큼 춥다’라는 말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3명으로 43.3%나 나왔다. 이런 결과는 영하 12도와 영하 9도는 ‘춥다’라는 비교내용의 범위 안에 모두 들어 있고 그 차이가 거의 무시할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방향 비교도 가능하다고 추론한 것으로 보인다. 즉, 키가 195cm 이상인 거인들을

8) 이 표에서 ‘적절하다’와 ‘아니다’ 행에 나온 숫자 중 위의 것은 응답자 수를 뜻하며 응답자 수 밑의 괄호 안의 숫자는 평균 응답 시간을 msec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응답자가 0일 경우는 괄호 안의 숫자도 없다.

대상으로 할 때 170cm인 허경환이나 158.7cm인 김병만은 둘 다 작고 그 차이는 거의 무시할 만한 것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과 유사한 경우로 판단된다. 반면에 ‘A는 B만큼 춥다’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56.7%의 응답자들은 비교내용에서 상대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서 한쪽으로만 대등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B와 C를 비교할 때 ‘B는 C만큼 춥다’에 적절하다고 한 응답은 없었지만 역으로 ‘C는 B만큼 춥다’에 적절하다고 한 응답자는 6.7%가 있었는데 이들은 비교내용의 범위를 넓게 잡고 추론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C란 도시의 예년 기온이 영상 20도를 상회하는데 오늘따라 7도로 내려갔을 경우 C는 영하 9도인 B 못지않게 춥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응답자 전원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기온에 관한 생각을 공유한다고 볼 때 이런 응답은 다소 예외적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A와 C는 비교내용의 속성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응답에서도 모든 피험자들이 ‘-만큼’을 사용한 대등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각을 보였다.

실험-3에서는 ‘-만큼’이 사용된 제3 유형의 비교구문의 적절성 지각도 검사뿐 아니라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그 반응 속도까지 측정하였다. 그 결과 위 표-6에서처럼 A와 B에서 순방향 대등 비교를 할 경우 ‘적절하다’는 응답의 반응 시간이 2135msec인 반면, 역방향 대등 비교를 할 경우 ‘적절하다’는 응답의 반응 시간은 3471msec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순방향 대등 비교는 그 적절성을 인지하는 데 거의 자동적으로, 별 다른 추론의 시간이 걸리지 않은 반면, 역방향으로 대등 비교가 가능하다고 답한 경우는 자동적으로 답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별도의 추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로 비교내용의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A와 C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2012msec 및 2274msec로서 상대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나왔는데, 이는 ‘-만큼’ 비교에서는 비교어구와 기준어구가 일단 동일한 비교내용의 영역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모두 적절하지 못한 비교로 지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6.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에서 세 가지 유형의 비교구문의 추론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각 유형이 갖고 있는 의미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기 유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1 유형과 제2 유형은 ‘더’의 유무에 의한 강조의 차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2 유형은 비교어구와 기준어구의 비교 속성에 대한 전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 제1 유형은 그런 전제 의미가 없는 단순 비교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추론상의 차이는 Kennedy(2001)식의 논리 표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이는 실험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제3 유형은 비록 비교대상들 사이의 비교내용에서의 대등성을 보여주는 비교구문이지만 영어의 원급 비교처럼 대칭적 대등 비교가 아니라 비대칭적 대등 비교로 지각된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Kennedy 식의 형식의미론적 논리 표상만으로는 한국어 제3 유형의 비교구문이 갖고 있는 의미적 비대칭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우선 전제 차등 비교인 제2 유형의 경우 대부분은 그 비교구문에서 전제가 확인되지만, 다음과 같은 종류의 예문에서는 전제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2) 이 가방은 저 가방보다 3만원이 더 비싸다.

위 예문의 경우는 단순한 정도적 술어 외에 비교 속성에서의 차이를 정확한 측정 단위와 숫자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비록 제2 유형이라도 전제가 성립되지 않아서 ‘이 가방은 비싸다’라는 전제가 지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가 사용된 제2 유형일지라도 정확한 수치가 비교 내용으로 추가 제시된 경우는 단순히 ‘더’만 쓰인 제2 유형과 구별해서 의미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3 유형으로서의 대등 비교구문으로 비교소 ‘-만큼’이 사용된 것에 국한하였다. 한국어의 대등 비교구문에는 ‘-만큼’ 외에도 ‘-처럼’이나 ‘-정도로’와 같은 비교소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 이들 비교소가 사용된 비교구문은 ‘-만큼’과 유사한 대등 비교를 보여주는 구문이지만, ‘-만큼’ 비교구문에서와는 다른 추론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향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비교구문, 정도적 술어, 지각, 이해, 함축, 전제, 비대칭성, 실험화용론

참고 문헌

- 김영희. 1988. 등위접속문의 통사 특성. 『한글』 200-201, 83-117.
- 김정대. 1994. *한국어 비교구문의 통사론*. 박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 김정아. 1993. *십오세기 국어의 비교구문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남지순. 2009. 온라인 상품 비교문 추출을 위한 형용사 술어 비교구문 연구. 『언어과학』 16.3, 63-95.
- 박기성. 2010. 영어와 한국어 비교구문 의미론 연구. 『언어과학』 18.4, 47-60.
- 오경숙. 2010. 『한국어의 비교구문 연구』 서울: 박이정.
- 이성범. (준비중). 한국어 전제 지각에 대한 실험적 연구.
- 정인수. 1999. 국어 동등 비교 형용사구문의 의미연구. 『현대문법연구』 18, 147-166.
- 하길중. 1999. 『현대 한국어 비교구문 연구』 서울: 박이정.
- 홍윤표. 1976. 비교구문에서의 격어미와 후치사. 『학술원 논문집』 15, 1-18.
- Cresswell, M. J. 1976. The Semantics of Degree. In Partee B. (Ed.), *Montague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 Heim, I. 1985. *Notes on Comparatives and Related Matters*. Manuscript.
- Jhang, S.-E. 2001. Comparative Constructions in Korean. *Comparative Korean Studies* 9, 1-18.
- Katsos, N. 2003. An Experimental Study on Pragmatic Inferences: Processing Implicatures and Presuppositions. *RCEAL Working Papers* 9, 101-128. *University of Cambridge, Research Centre for English and Applied Linguistics*.
- Kennedy, C. 2001. On the Monotonicity of Polar Adjectives. In J. Hoeksema et al. (eds.), *Perspectives on Negation and Polarity*. Benjamins.
- Kim, J.-B. and P. Sells. 2009. On the Structure of Korean Comparative Constructions: A Constraint-based Approach. *Language and Information* 13(2), 29-45.
- Klein, E. 1991. Comparatives. In von Stechow, A. and D. Wunderlich (eds.) *Semantik: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der zeitgenössischen Forschung*. Berlin: Walter de Gruyter.
- Lee, S. and S.-J. Hong. 2012. Neg-Raising in Korean: An Experimental Pragmatic Analysis.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19(1), 351-364.
- Levinson, S. P. 2000. *Presumptive Meanings*. Cambridge: MIT Press.
- Park, S.-Y. 2009. Three Types of Korean Comparatives. *Japanese/Korean Linguistics* 16, CSLI Publications.

Seuren, P. 1978. The Structure and Selec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Gradable Adjectives. In D. Farkas et al. (eds.),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the Lexicon, CLS 14*. University of Chicago. 336-346.

이성범

121-742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영미어문전공

전화번호: 02-705-8294

전자우편: sblee@sogang.ac.kr

투고일자: 2013. 12. 31

수정일자: 2014. 02. 03

확정일자: 2014. 02. 10